

韓半島 南部 早・前期~中期 聚落의 變遷과 農耕

俞 炳 琿
우리문화재연구원

〈목 차〉

- | | |
|--|---|
| <p>I. 머리말</p> <p>II. 聚落의 變遷과 그 內容</p> <p> 1. 聚落研究 成果</p> <p> 2. 聚落研究 內容</p> <p>III. 聚落과 農耕</p> <p> 1. 靑銅器時代 農耕의 問題</p> <p> 2. 農耕聚落</p> | <p>IV. 農耕集約化와 松菊里文化</p> <p> 1. 農耕集約化 問題</p> <p> 2. 松菊里文化의 性格</p> <p>V. 課題 -맺음말을 대신하여-</p> |
|--|---|

I. 머리말

한국 선사~역사 시대 중 취락고고학적 관점에서 청동기시대처럼 특히 주거형이나 규모가 급변한 시대는 없다. 초기에는 200㎡가 넘는¹⁾ 방형이나 장방형 주거에서²⁾ 전기에는 다시 세 장방형으로³⁾ 변했다가, 중기에는 다시 급속하게 면적이 축소⁴⁾된 방형이나 원형이 대세를 이 어간다. 주거내 여러 관련 시설들도 규모의 변화와 함께 변모하는 것도 물론이다. 그 변화의 압권은 단연 노지가 사라진 중기 소형의 송국리형주거지의 출현이다.

더불어 같은 시대내 전기와 중기로 구분되는 양자의 사회양상도 마찬가지로이다. 마치 전혀 다른 시대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사회상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연구자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 변화의 요인 중 핵심은 농경이라 할 수 있는데 주거형의 변화도, 취락형태의 변화도 모

1) 최근 조사된 춘천 중도유적에서 200㎡, 진주 대평리유적에도 220㎡가 넘는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2) 초기의 대표적 유적인 미사리유적의 경우 방형주거지 4기 중 내부 면적이 최대(고려대-015호) 85㎡, 최저(고려대-018호) 36㎡이다.
 3) 예를 들어 호서지방 가락동식·역삼동식·혼암리식주거지의 규모가 최대 90㎡를 넘지 못하고, 대개 40㎡ 전후를 보여준다(허의행 2013, 235~258). 역삼동식취락의 대표유적인 천안 백석동의 경우 206기의 주거지는 '중형'으로 설정한 20~36㎡이 숫적으로 가장 많고 '초대형'은 54㎡를 넘어야 하며 10기에 해당 한다(나건주 외 2011, 44).
 4) 부여 송국리유적의 가장 큰 규모의 주거지(55-4호)는 약 30㎡이나 대부분 20㎡를 넘지 못한다.

두 ‘농경의 집약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만일 농경에 대한 연구성과나 관점의 변화는 곧 다른 유구들에 대한 관점도 자연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석기시대부터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진입하는 세계사적 성과와는 다르게 한반도는 청동기 시대해야 비로소 그 관문에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그 동안 급속히 쌓아 온 청동기시대 취락자료를 통해 청동기시대상의 상당부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의문사항이 남아 있고,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취락과 농경과의 관련이다. 이 둘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청동기시대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II. 聚落의 變遷과 그 內容

1. 聚落研究 成果(表 1로 代替)

[表 1] 青銅器時代 地域別 住居·聚落研究 成果

地域	早期~前期	中期	備考(研究者)
江原 嶺東	· 입지 : 하천/호수 주변 구릉 · 이른시기에는 소규모 취락 · 후반에 주거지 증가와 함께 취락의 규모 확대	· 강릉 방동리A유적 · 구릉사면부 입지 · 방형주거지 6기 수혈 5기	朴榮九(2007)
江原 嶺西 (北漢江/ 南漢江)	· I기(조기?):突帶文토기단계 · 미사리식주거 · 대형(장)방형주거지 2~3기 하천 따라 線狀구조, 주변에 수혈1~2	· III기(전~중):孔列文토기2단계 · 북한강유역 중심으로 (장)방형주거지의 증가세, 작업공시설, 이색점토구역 등장(천전리식 주거) · 5~6기 단위의 面狀구조에서 多面 구조로 변화 양상	金權中(2005)
	· II기(전기):孔列文토기1단계 · 북한강:대형세장방형주거지,수혈식노지,다수의 저장공 · 남한강:중대형 장방형주거지, 1~2기의 위석식노지 · 다수의 주거지가 일정 공간내 面狀분포구조	· IV기(중기):孔列文토기3단계 · 천전리식주거지와 천전리유형(송국리문화와 동일단계) · 前보다 고밀도의 多面적인 面狀 구조	
中部	· 조기~전기 전엽 : 주거 소군집 · 전기전엽 분묘의 등장(외삼포리 석관묘 출토 이단병식석검) · 전기 중~후엽 · 주거수 증가와 취락규모 확대 · 일부 묘역조성(영역성?) · 이동성이 강한 화전농경	· 선송국리유형 포함한 송국리유형 · 주거+분묘+저장+의례공간 · 정착 농경과 밀접한 관련 · 사회복합도 높아진 사회 · 거점취락/중심취락(초기 도시적 요소)	李亨源(2012)

湖西	· 역삼동유형취락-가락동유형취락 · 역삼동형취락 -입지상 구릉의 정상부 사면부 -노지 및 저장공 수의 감소 · 가락동형취락 -입지상 구릉의 정상부에만 집중 -노지 수만 감소 · 공통점 -주거형: 방형→세장방형→방형		許義行(2013)
湖南	· 1가: 장방형주거지, 수혈식노지 1~2 · 2가: 세/장방형주거지, 0~3개의 노지, 일부 위석식노지 · 3가:초세/세/장방형주거지, 0~5개의 노지 · 4가: 원형이나 방형, 노지 1		洪畹棼(2010)
嶺南 (南江)	· 전기전반: 미사리유형 · 전기후반: 대형장방형주거→세/장방형주거로 이행, 무시설노지, 저장형	· 중기 전반 : 유적 최전성기(대평리유형 단계) -다양한 유구 구축 등 대규모취락 -환호취락 -송국리형주거지 출현(방형) · 중기 후반 -주거형 방형 감소, 원형 중심 -환호 지속	高旻廷(2003)
嶺南 (洛東江 中流域/大邱)	· 입지:평지(하천변)→구릉/평지 · 유력취락은 구릉(火田) · 주거군 :개별주거지 분산 배치→2~3기 단위(대형+중형)→4~5기 단위(대형+중형/중형+소형, 대형주거포함된 주거군이 주도)	· 입지:하천이나 하도변에 입지(농경과 관련) · 주거군: 6기 전후 주거군 구성, 소형중심	河眞鎬(2008)
嶺南 (東海岸)	· 초기:구영리유적 V-1(미사리형) · 전기 전중엽 -세/장방형주거지 2~3동 · 전기 후엽 -세장방형 감소, 울산식주거지 일 반화 -구릉 사면에 집중(능선부:광장) -10여 동 集村化(인구증가)	· 중기 전중엽 -주거가 脫列狀배치, 무리화 -1~2동 중형+4~5동 소형 -환호 등장(공동결집) · 중기 후엽 -취락내 배치 규제 강력작용 -주거는 소형화, 규칙화 -1동 중소형+2~3동 소형 *본문에는 후기로 기재하였으나 필자 수정	李秀鴻(2012)
南東海岸 (蔚珍-蔚山)	· 입지: 하천변 구릉지, 해안단구, 일부 해안 · 생업유물: 경작지 · 탄화곡물 미출토, 토제어망추와 수렵구 다량	· 집단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울산형 주거지, 능선부 수 기 배치	朴榮九(2013)

全國	· 초기: 단위취락 -미사리식주거: 대가족체(핵가족 2단위) · 전기: 복수취락 -혼암리식주거:대가족체(핵가족 2단위) -노은동 · 용정동식주거:대가족체(핵가족 2단위) -관산리식주거:대가족체(핵가족2~7단위) -봉계리식주거:대가족체(상동)	· 복합취락 -울산식주거: 핵가족	安在皓(2006)
	· 초기 : 미사리유형 취락 -미사리취락 · 전기 : 가락동유형 취락 -대전 둔산취락/노은동취락 -대전 신대동취락 -청주 용정동취락 -청원 대율리취락 · 전기 :역삼동 · 혼암리유형 취락 -여주 혼암리취락 -보령 관산리취락 -천안 백석동취락	· 송국리유형 취락 -화성 반송리취락 -보령 관창리취락 -부여 송국리취락 · 취락양상 -주거공간만으로 구성 취락 -주거+저장공간 구성 취락 -주거+분묘공간 구성 취락 -주거+저장+분묘 구성취락 -주거+저장+분묘+의례	李亨源(2008)

2. 聚落研究 內容

1) 時期的 特徵

(1) 早 · 前期

▶ 초기와 전기의 구분이 불확실한 것은 문화사적 구분보다는 토기유형의 차이에서 결정(이기성 2012)되었기 때문으로, 지역과 연구자에 따라 두 시기 설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 전기 취락(주거)의 특징 및 구분이 기존 토기문양 속성을 위주로 한 토기양식(가락동형(유형), 역삼동형, 혼암리형)에 준하여 특정집단이나 취락의 계통까지 규정하는 양상이어서 토기양식과 주거양식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문화적 양식(유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 초기와 전기의 문화양상이 토기를 제외하면 주거나 취락 양상이 다양하지 않음에도 중기의 ‘송국리문화’와 같이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특정문화가 없는 상태이다.

▶ 취락의 성격을 결정짓는 초기와 전기 토기양식은 모두 외래계로서 북쪽에서 기원 혹은 주민의 이동을 설정하고 있어 재지계의 양식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연천 삼거리 각형 토기는 변형양식(이형원 2014)으로 재지계와의 결합결과로 보고 있지만 재지계 양식이라는 것이 당시 어떤 것인지 설정되지 않고 있다.

(2) 中期

▶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각각 전기에서 중기로의 변화과정이나 물질문화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 중부지방(한강유역)은 기존 전기의 역삼동유형의 지속 속에서 중기가 설정되고 있다. 중기 설정의 기준이 순수 공열문토기의 사용, 호형토기의 증가, 유구석부와 일단병식석검, 일체형석촉의 사용⁵⁾ 등 주로 유물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북한강유역을 중심으로는 이전보다 규모가 축소된 장방형 주거에 2×3柱式이나 2×4柱式의 내측주공 배치에 내부에 작업공간이나 작업공이 배치되는 ‘이색점토다짐구역(김권중 2004, 11~12)’이 출현하는 소위 ‘泉田里式住居址(김권중 2005)’를 포함한 ‘泉田里類型(김권중 2010)⁶⁾이 중심적 위치에 있다.

▶ 중서부 한강 하류 경기 이남지역은 안성천 유역 등에서 송국리형주거지가 출현하는 기점을 중기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 충청 이남지역은 송국리형주거지의 출현과 함께 중기가 시작되며 ‘송국리문화’로 통일된다.

▶ 남부지역 중 인천에서 울산을 직선으로 잇는 북서-남동 사선 북쪽의 非송국리문화권은 전기 이래의 역삼동유형이 지속되면서 자체 변화가 이루어진다.

2) 住居와 聚落

(1) 早・前期

▶ 전기 이른 시기에 대형주거지 1동만 확인되는 사례는 취락의 기본단위로서 1가구 대가족 중심(세대공동체)으로 간주한다. 이는 중기에 2~3동으로 分棟하여 전기의 ‘共同居住型 住居方式’에서 중기의 ‘獨立居住型 住居方式(김승욱 2006)’으로 변환된다는 점에서 대형주거 1동만으로 單位集團 혹은 世代共同體 형성이 가능(이형원 2014, 18)하다.

▶ 전기는 기본적으로 한 취락내 대형의 주거가 2~3기 내외의 小群集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서로 다른 양식에도 주거지 내부 시설의 설치나 추가양상에 있어서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세장방형이나 장방형주거지의 爐는 장축 중심상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대개 장축방향으로의 증축에 노를 같이 추가하여 세대 구성원의 증가를 대비하였다.

▶ 조기와 전기의 聚落內部 혹은 聚落間 位階相이 명확치 않다. 대부분 규모에 의해 크게 2개인 上位集團과 下位集團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취락

5) 김권중(2004)은 영서지역 특히 북한강유역의 경우 북한강유역의 주거유형(泉田里類型)과 유구석부와 일체형석촉을 이 지역 중기의 핵심요소로 파악한 반면, 송만영(2010)은 경기 남부지역 송국리유형의 주거지 조영과 함께 일단병식석검과 유구석부를 이 지역 중기의 핵심요소로 파악하였다.

6) 이전의 ‘北韓江類型’을 수정한 것이다.

간 네트워크의 문제도 단순히 취락간 거리로서 재단할 뿐 명확이 서로 어떤 매개체로서 연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표 2] 青銅器時代 聚落內·聚落間 位階 研究

研究者	對象 (地域·時期)	內容
배진성 (2006)	전체	1. 위세품을 부장할 수 있는 상위계층 2. 위세품은 없지만 분묘를 축조하는 계층 3. 분묘를 축조할 수 없는 하위계층
안재호 (2006)	전체	상위-중위-하위취락
송만영 (2007)	전체	취락간에는 대형·중형·소형취락으로 계층화 중형취락이상의 내부적으로 상위·중위·하위집단으로 분화
이형원 (2007)	호서(전기)	2단위(지도자가 속한 세대공동체의 상위계층-일반계층)
공민규 (2013)	호서 (전기/금강 유역)	중심취락 - 배후취락 - 주변취락(배후취락도 포함)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관계는 상하의 수직관계
이형원 (2009)	중기	상위계층-중위계층-일반계층 *부여 송국리와 보령 관창리취락 대상

(2) 中期

▶ 전기의 대형주거지에서 중기에 주거지 規模縮小와 이에 따른 分棟현상을 단순 大家族에서 核家族 制度로의 전환(안재호 1996)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 주거방식의 변화(김권구 2005)으로 보아 조전기 세대공동체적 ‘공동거주형 주거방식’에서 분가된 ‘독립거주형 세대공동체’로 전환(김승옥 2006)으로 본다는 입장이 있다. 여기에는 생산과 소비적 측면에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관점의 차이로 일반적으로 핵가족은 독립된 가족체계로서 경제적 독립성이 전제되는 것에 비해 중기의 소형주거군은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 중기 이후 住居構造와 住居方式의 변화는 ‘私的 空間의 進化’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즉, 초기와 전기 전반의 방형과 장방형주거는 내부 공간분할이 분명치 않음과 달리 전기 후반부터 세장방형 주거내 複數의 노지가 설치되며, 또한 종방향으로의 증축이 노지 개설과 함께하는 양상을 볼 때, 世代別 獨立空間의 確保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중기의 독립거주형 주거의 일환으로 사적 공간의 확보가 송국리형주거지로 완결된 것으로 본다(김승옥 2006, 31). 문제는 그 독립거주형 주거가 왜 하필 노지가 없는 형태의 주거였느냐 일 것이다. 주거는 독립을 하면서 炊事는 共同으로 하는 방식이 中期 社會複合化와 관련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세대공동체의 주거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전기의 1동의 주거내 노지가 2~3개인 대형주거지 2~3동과 소형주거지 10동은 그 거주인원으로 볼 때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기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언급하듯이 단순히 주거지의 숫자가 많다고 인구증가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⁷⁾.

▶ 중기단계부터 대규모 집단취락으로의 전환됨과 함께 특히 송국리문화의 경우 취락구조상으로 주거·무덤·경작영역의 분할되는 聚落의 類型化가 이루어졌다(최종규 2005, 224~227)⁸⁾

▶ 중기 송국리문화권에서 보이는 유적의 입지적 차이가 지역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즉, 호서지역과 호남지역은 주로 구릉에 입지하고 있는 반면, 영남지역은 하천변이나 곡저평야, 선상지 등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이는 전자가 眺望圈을, 후자는 接近性을 중시한 결과(신상효 2011, 139~142)로도 보고 있다. 또한 전자는 구릉별로 주거영역과 무덤영역이 분리되고 있으며 일부는 목책이나 환호 등을 통해 주거영역을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후자는 주거, 무덤, 생산영역이 하나의 범주로서 일체화된 취락유형을 보이고 있다.

▶ 중기부터 중심취락 혹은 상위취락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유적 중 그 일례로 晉州 大坪里遺蹟을 들 수 있다. 환호 등으로 둘러싸인 대형취락 주변에 대규모 농경지(田)와 玉을 위시한 수공업을 통한 위계와 이를 통한 네트워크 수준을 짐작케 한다. 이는 곧 중기의 位階化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고민정 2010).

▶ 송국리문화의 중심취락 중 호서·호남의 대표인 송국리유적과 영남의 대표인 진주 대평리유적간 그 취락성격에 대한 대비가 명확하여 주목된다. 송국리유적은 자체 생산보다는 주변을 통제한 중심집단이자 消費中心聚落⁹⁾(김장석 2008)인 것에 비해, 대평리유적은 대규모 경작지(밭)를 배후로 한 生産中心聚落(윤호필 2013)으로 설정되고 있다.

▶ 중기에 강원도와 경상도 동부지역(검단리유형권)을 비롯한 非송국리문화권의 양상은 송국리문화권과 相似點과 相異點이 존재한다. 우선 노지가 없어지며 방형에서 원형으로 변하는 송국리형주거지와 달리 노지는 있지만 대개 하나 정도로만 남는 장방형 혹은 방형의 규모가

7) 김승옥(2006)도 언급하듯이 2006년(6월) 기준 발굴조사된 주거지 숫자가 가락동유형 44기, 역삼동유형 897기, 휴암리 750기, 송국리형 600기로 면적대비로 한다면 휴암리형이나 송국리형이 역삼동유형의 최소 2배는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인구감소로 보이고, 더욱이 전기와 중기 각각의 시간폭을 생각했을 때에도 더욱 그러하다.

8) 최종규는 주거+묘지+생산공간이 무리로 확인되는 一體型和 주거군 혹은 묘지군 자체로만 확인되는 유적은 分離型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상당수의 대규모 취락 유적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부여 송국리, 보령 관창리, 창원 덕천리유적이 해당한다.

9) 호서와 호남지역에서의 생산전문유적은 설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주거지 5기 미만의 저장전문유적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장은 생산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생산전문유적일 수도 있지만 유적이 너무 소규모라는 점에서 문제는 남아 있다.

축소된 형태의 주거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은 중기의 주거규모 축소현상은 동일하게 일어난다. 또한 취락 공간구조의 다양화로 분묘공간의 확대 등도 유사하게 진행된다. 다만, 강원도지역의 경우 취락주변 농경지의 미확인, 검단리유형권인 동남해안쪽은 분묘숫자 및 분묘공간이 뚜렷하지 않은 차이점은 존재한다. 이는 결국 두 문화권간의 生計方式의 差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III. 聚落과 農耕

1. 靑銅器時代 農耕의 問題

1) 火田農耕 關聯事項

▶ ‘火田耕作’은 ‘移動式 耕作(休耕의 필요성 바탕)’과 혼동이 되곤 하는데 서로 다른 개념으로 후자는 농경 집단의 이동이 아닌 경작지점의 이동으로 정착생활과 동반할 수 있는 경작방식이다. 그리고 화전이라고 해서 대가족 중심이 되어야 하지도 않을뿐더러 산지(구릉)입지라고 화전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고일홍 2010, 41~42).

▶ 화전이 不安定한 農耕方式이라는 오해는 잦은 이동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실 빈번한 이동성과 화전에 대한 인식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었느냐에 대한 것도 분명치 않지만 민속지적 사례 중 일부는 잦은 취락의 이동이 화전농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일홍 2010, 35).

▶ 청동기시대 화전농경의 가능성은 가락동유형인 大田 屯山遺蹟의 고찰을 통해 본격 제기되었는데 취락이 상대적으로 규모면에서 작고 주거지의 短期占有 양상을 보이는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이강승·박순발 1995, 294).

▶ 전기의 山間地形 취락(혼암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 혼암동유형)은 거의 모두 화전이 중심이었을 것으로 판단(박순발 1999; 안재호 2000)하고 있다. 그러나 안재호는 이 보다 앞서 시기인 조기의 평지형취락인 漢沙里型은 田作으로 추정하였다.

▶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비판없이 따르고 있는 ‘前期 火田論’은 고고학적 자료로 검증되지 않은 명제임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신숙정 2001, 19~20; 안승모 2005, 13~14; 김장석 2007, 14; 고일홍 2010) 된 바 있다.

▶ 문제는 아직까지 전기의 화전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不在인 상태라는 점인데, 그동안 구체적인 유구가 아닌 주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그 가능성이 일부 추측되어져

왔다. 다음은 遺物을 통한 火田 및 農耕方式의 검토사례이다.

① 안재호(2000): 출토 석기를 통한 농경방식 검토사례로 蛤刃石斧와 片刃石斧의 비율을 통해 농경방식을 검토하였는데 蛤刃石斧는 火田 中心, 片刃石斧는 水稻作 중심, 打製石器는 田作에 유리한 도구로 판단하였으나 농기구만으로 농경방식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는다(김도현 2012, 45).

② 신숙정(2001, 20) : 화전경작에 중요한 도구는 벌채용 석부, 팽이, 나무도구(뚜지개) 등인데, 麗州 欣岩里遺蹟에서 출토된 農具조합은 다르다. 오히려 주변 南漢江 일대 沖積地나 谷間에 논이나 밭을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③ 송은숙(2001) : 돌보습의 형태 주목하여 신석기시대 남부 내륙의 경우 구릉지화전은 재와 두꺼운 부식토를 갈기 위해 팽이류와 대형 돌보습이 필요하나 그렇지 않아 화전이 불가하며 오히려 하천변 사질충적지 개간에 유리하다. 智塔里는 대형 돌보습 출토되어 화전의 가능성이 보인다.

④ 손준호(2008) : 중기에 석기 중 掘地具와 伐採具가 감소하는 양상에서 화전이 아닌 밭농사의 비중이 축소된 결과로 이해하며 이는 加工具의 증가로 이어진 新石器문화단계의 수전경영과 연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水田農耕

(1) 前期 水田耕作 可能性

▶ 울산 지역 중심으로 전기 수전 확인 예가 일부 있다. 다만, 일부 계단식 수전의 경작면이 경사진 경우에 수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김병섭 2013).

▶ 천안 백석동 고재미굴 전기 취락유적의 곡부지역 퇴적층의 미세토양분석을 통해 구 지표면 당시 半濕半乾의 생태환경을 확인하여 수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여건은 가능하다고 판정(이희진 2012, 97)되었다.

▶ 역시 천안 백석동의 탄화미를 대상으로 한 窒素·炭素安全同位元素 분석에서도 벼의 질소동위원소 比가 뚜렷하게 높게 나와 水稻作으로 재배된 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庄田愼矢 외 2011, 98).

▶ 청동기시대 목재 농경구 중 전기에도 출토된 팽이, 고무래, 삽 등은 수전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조현중 2014).

▶ 영산강 일대 화분분석을 통해 光州 山月洞 봉산들유적과 東林洞유적에서 전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배벼 타입의 花粉이 검출되었다(김민구 2010).

▶ 이 외에도 직접적인 수전의 증거는 아니지만 전기단계의 토기에서 보이는 벼 압흔이나

전기 유적의 유구내 탄화미 자료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2) 中期 水田農耕

▶ 중기(송국리문화)로의 진입과 함께 본격적인 농경과의 관련성 연구 증가(표 3).

【표 3】 中期의 始作과 農耕關聯 研究

研究者	論旨	備考
이기성(2001)	밭농사보다는 도작, 아마도 논농사가 일반화	전기는 도작수용 가능성 있으나 정작은 아님
안재호(2000)	한반도 수전의 시작 기점	조기는 전작, 전기는 화전 중심
안재호(2004)	취락기능의 분업화(전문공인집단과 특정개인/특정집단의 출현)	중서부지역
김장석(2006)	복합사회의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고, 중심취락락이 형성되며, 유적간의 위계 또는 기능분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구증가보다는 인구 이동, 농업의 집약화도 전기 늦은단계부터 설정(2003)
김범철(2006)	복합적인 사회조직의 등장, 수도작의 본격화에 따른 생산과 분배체제 운용을 위한 수장/수장층이 등장	
김승옥(2006)	수도작 농경의 도입은 상대적인 영구 정착과 인구의 집중, 이로 인한 협업단위와 취락체계의 재편이 필수적으로 요구, 취락의 대규모화와 주거방식의 변화(독립거주형 주거방식)도 동반	
윤호필(2008)	농경에서 독점적 농경기술과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취락네트워크로서 유통 단계	
고민정(2009)	대규모취락을 중심으로 집약농경과 수공업생산으로 사회적 위계가 출현	진주 대평리취락 대상
신상호(2011)	대규모 취락집단으로의 전환은 소단위의 군집이 여러 개 모여 취락을 형성하면서 주거영역과 경작영역, 그리고 무덤영역 등 영역분할, 수전농경으로 변화	
이형원(2012)	농경의 비약적 발전과 인구증가, 관련된 취락이나 집단의 기능분화나 계층분화에서 사회복합도가 한층 높아진 사회	

▶ 대체로 중기 松菊里文化와 水田을 同一視하는 경향이 압도적이다. 문제는 연구성과처럼 송국리단계 수전의 확인이나 조사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일 전기단계에서 수도작의 증거가 확실해 진다면 송국리문화와 수도작과의 관계도 재검토(도작의 시작이 아니라 정착?)해야 할 것이다.

▶ 많은 연구자들이 중기 송국리문화가 수도작을 기반으로 유지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자료는 많지 않다. 수전의 확인 사례의 부족, 중기 단계 西海岸의 古南里, 休岩里 등지에서의 海洋資源의 이용 개시(김장석 2003, 50), 당시 출토 人骨(古南里 貝塚)의 탄소 및 질소동위원소 분석 결과 主食은 신석기시대 이래 조와 가장 같은 雜穀의 섭취가 상당부분 차지(이준정 2011)하였다는 사실,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화분분석을 통한 청동기시대 農業集約化의 증거 미흡(김민구 2011) 등의 검증자료들은 수도작에 유리한 편이 아니다. 그나마 내륙 유적에서 출토되는 작물유존체 중 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안승모 2008) 정도가 위안거리가 될 듯 하다.

▶ 석기도구론적 입장에서 중기에 掘地具(打製石斧)와 伐採具(蛤刃石斧)가 감소하는 양상은 밭농사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고, 반대로 加工具(片刃石斧, 有溝石斧, 石鑿)의 증가는 송국리문화의 등장에 의한 논농사의 활성화와 일치한다는 의견(손준호 2008, 65)도 있다.

3) 밭(田)경작

▶ 초기의 각목돌대문토기문화는 ‘농경사회의 서막(배진성 2011, 142)’이라는 수사가 붙기도 하였지만 농경과 관련된 증거는 석도가 거의 유일하며 일명 ‘미사리식주거지’들은 대부분 하천변에 입지한다는 특징에 따라 밭(田)경작 가능성이 언급(안재호 2000)되었다.

▶ 청동기시대 특히 중기부터는 수도작이 정착되고 일반화된 것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밭경작 중심으로 농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당시 도구체계상의 문제와 논에 비해 밭의 구조와 경작방법이 간단하면서 재배작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을 많이 필요해 입지가 한정된 수도작에 비해 지형적인 제약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윤호필 2012, 61).

▶ 청동기시대 경작유구 중 밭은 전기에 비해 초기나 전기 단계는 아직 확인 사례가 없으나, 중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확인된 면적은 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 것으로 보아 당시 농경은 田作 중심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김병섭 2013, 15). 벼 유체도 水稻作보다는 陸稻作의 결과물이 상당하였을 가능성을 晉州 南江 일대유적이나 坪居洞遺蹟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2. 農耕聚落

▶ 중기에 농경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주거지의 반복적 축조를 통한 장소의 의미화, 과거와 조상의 중요성의 강조를 통한 죽음의 장소화의 결과로서의 지석묘를 비롯한 集團墓域, 그리고 양자를 통한 새로운 일상세계 및 상징구조의 구성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農業景觀을 형성

(김종일 2009)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경관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호서나 호남처럼 타자의 景觀性을 중시한 丘陵立地方式과 영남처럼 內的 便利性 중시한 平地立地方式이다. 동시기 동일문화내 이러한 입지적 차이가 농경문화와 사회위계화 문제가 연결되었을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俞炳琿 2014).

▶ 취락형태의 변화와 농경과의 관련성(표 4)

[표 4] 研究者別 時期에 따른 聚落形態의 變化

研究者	早期	前期	中期	對象地
김권중(2005)	線	面	多面→多面的인 面狀	嶺西
안재호(2006)	點	線→面→多面	點面聯立→球心	全國
이형원(2009)		點狀→線狀(面狀)		全國
이흥종(2007)			塊村型, 列村型, 點村型, 廣場村型, 環村型 環村型→廣場村型(대취락)	湖西
공민규(2011)		點狀→分散 點狀→面狀		湖西 (錦江)
이수홍(2012)	點狀	點狀, 列狀	面狀(多面→點面聯立→球心)	南東海岸
허의행(2013)		역삼동형:點(線)·並列配 列·環狀		湖西
		가락동형:點狀·群集		

이러한 취락구조의 변화가 농경형태의 변화와 연관이 되었느냐하는 것인데 조전기 중엽까지 2~3동의 주거지 구성되는 것은 다수인원 동원이 필요한 수전이 아닌 화전이나 전작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기 후엽부터는 수도작의 활성화(?)로 취락내 구성원의 숫자가 증가하여 계층화가 시작되었다. 중기에 이르러 취락이 구조화되고 안정화되는 양상을 통해 농경형태의 변화가 취락구조의 변화를 推動, 그 결과 階層化가 發現(이수홍 2012, 111)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표 4]를 보면 송국리문화권이든 아니든, 지역에 상관없이 마무리는 취락의 형태가 面狀이나 求心과 같은 무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동일한 농경형태를 송국리문화권과 비송국리문화권 구분없이 가졌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최근 울산 검단리유적을 재검토하여 주거지들을 기존 3시기에서 6시기로 재편한 결과를 보면 선상배치와 면상배치가 반복 혹은 혼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안재호 2014, 91~96)¹⁰⁾.

IV. 農業의 集約化와 松菊里文化

1. 農業의 集約化

▶ 集約的 農業이란 單位面積當 生産量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중기 송국리형취락단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표 5] 農耕 集約化를 說明하는 對照的인 理論的 Model의 概念과 適用 事例

區分	top-down理論	bottom-up理論	備考
개념	농경에 대한 모든 계획과 관리를 권위적인 엘리트가 담당	일반 구성원들이 지역적으로 조직화하고 개별적으로 의사결정, 관리자적 주장층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상호 절충적 관점도 제시
김범철(2006)	착취적 지도권의 관점 (exploitative leadership)	관리자적 지도권의 관점 (managerial leadership)	송국리취락(C취락)과 합정동취락(B취락) 비교
윤호필(2008)	‘하향식 관점’ (중기 송국리형 문화단계 = 복합사회로의 전이)	‘상향식 관점’ (전기의 농경)	독점적 농경기술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유통
김범철(2009)	‘下達型 설명모형’	‘自發型 설명모형’	중서부지역 취락은 혼합적인 양상을 보임
고민정 · Martin T. Bale (2009)	엘리트계층의 곡물 통제, 취락간 위세품의 생산과 분배	밭의 조성과 사용 유지	진주 대평리취락 대상 분석

▶ [표 5]에서 언급된 연구자들의 관점은 농업집약화에 따른 두 이론 중 하나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기 보다는 대체로 청동기시대에서는 混在된 양상이었다는 中間者的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중기를 중심으로 한 위세품의 사용, 지식료 축조, 인구 증가에 따른 대형 취락의 등장과 확산은 기본적으로 농경에서 비롯된 잉여생산물의 축적과 관련되는 사회현상으로 이는 농경 집약화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집약화의 간접자료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직접자료로서는 결국 구체적인 농경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벼농사 耕作面積 擴大와 單位面積當 生産性向上이라는 요소이다(김민구 2010).

10) 여기서 검단리유적을 포함한 검단리유형을 송국리문화에 비해서 수렵어로채집문화가 강한 사회라는 인정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인지는 명확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중기 집약화의 作物의 對象은 쌀이 선택되었는데 論山 麻田里, 夫餘 九鳳里·蘆花里, 夫餘 松鶴里의 예를 통해 중서부지역에 송국리형취락의 논의 일반적으로 동반하고 있음을 확대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논의 경우 夫餘 九鳳里·蘆花里를 제외하고 입지상 谷間水田나 구릉 말단으로 天水畝의 성격이 강한 경우로 생산성이 극히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浜田晉介 2007).

▶청동기시대에 농업집약화의 증거가 미약하다는 花粉分析 결과도 있다. 화분자료는 농경 집약화 및 이에 수반한 식생변화에 관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데 자본의 투입 또는 농업기술 발달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작물품종 도입의 증거는 현재까지의 자료로서는 三韓(原三國)시대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정(김민구 2010;2011)되었다.

▶농경집약화를 설명하는 고전적인 접근은 ‘Boserup의 모델(1965)’의 모델에서 찾는다. 농경집약화 과정에 人口增加와 休耕其間의 상관관계를 통해서인데 인구밀도가 낮은 사회는 화전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그러다 점차 인구의 증가하면 단위생산력이 높아져야 하며 이는 곧 휴경기간의 단축이나 한 농지내 多種作物의 경작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인구증가가 곧 농업집약화의 주된 요인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한반도 청동기시대 중기 단계에서 인구증가는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며, 인구 증가가 이루어져도 민족지적 사례¹¹⁾에도 있지만 진주 대평리나 평거동유적을 통해 보듯이 넓은 경작지를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경작하여 휴경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또 다른 민족지사례를 통해 인구밀도와 농업의 집약도는 아무런 관련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인 의미와 농업의 집약도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옥한석 1983, 161)¹²⁾도 있다. 즉, 생산의 주목적이 종교적인 요인과 같이 생계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인구밀도와 농업 집약도라는 因果論的 이론의 적용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2. 松菊里文化(聚落) 檢討

▶송국리문화의 등장은 [표 3]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곧 ‘複合社會 初期段階(김범철 2006)’로 인정되고 있다. 즉, 聚落 間 位階와 分業的 傾向의 발생, 家口(혹은 개인)間 差別化, 水稻作

11) 특히 화전과 관련된 사례로서 필리핀 Mindoro섬의 Hanunoo족의 경우 육도작을 함에 있어 경작 영역 내에 농사를 짓는 지점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안정적인 농경지의 보급을 꾀한다(고일홍 2010, 30~32).

12) H.C.Brookfieldsms는 뉴우기니 지역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구증가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경작방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오히려 비교적 단순한 농경기술로 경작이 가능한 곳에 밀집도가 높은 농경방식이 행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된 식량원이 타로토란(Taro)보다는 종교적의식에 사용하는 얀(yam)을 재배하는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H.C.Brookfieldsms, 1972).

의 개시 혹은 확대에 의한 복합적인 사회정치적 조직의 등장과 특정 작물의 집약적 생산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 앞서 벼의 집약적 생산에 대한 검토를 하였듯이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집약화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항상 因果關係가 애매한 경우가 있듯이 人口增加와 農耕의 擴大는 어느 쪽이 先行된 것인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유로서 人口壓과의 관계에서처럼 어느 쪽이 우선적으로 작용하여 다른 쪽을 추동시켰는지는 불명이다. 그리고 실제 중기 단계에 인구의 증가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 농경의 확대는 주거의 규모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논거도 부족하지만 왜 하필 노지가 없는 송국리형주거지로의 전환이었는지 의문이다. 개별 가구의 私的領域의 擴大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共同炊事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농경잉여생산물로 인한 사회불평등에 대한 대책으로 共同食事가 도입(고민정 2011, 80)된 것인가?

▶ 송국리문화의 기원 문제에서는 발표자는 자체기원설의 입장에서 김장석(2003)의 논지대로 天安 白石洞遺蹟의 解體와 금강 중하류역으로의 再結集이 이루어졌음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그 요인이 수도작의 본격화에 따른 노동력확보의 차원이었는지 명확치 않다고 보인다. 이 역시 인구의 증가와 농경의 확대 문제처럼 어느 쪽이 優先順位인지가 분명치 않다. 오히려 발표자는 백석동취락의 해체와 송국리형취락의 변화과정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송국리문화의 발생이 금강중하류역¹³⁾이라면, 여기서 간취되는 것은 당시인의 이동이 北쪽에서 南쪽으로, 高地에서 低地로 향한다는 사실이다. 호서지역의 송국리형취락의 입지가 구릉이라고는 하지만 백석동과 같은 전기 취락들에 비해서는 低地화된 것이고, 전기유적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호남지역에 중기단계의 유적이 집중되는 양상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와 함께 김장석도 지적하였듯이 전기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이 중기에 보이는 이유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렵채집 사회 내지는 이동성이 강한 사회로 설정한 전기에는 현재 확인된 패총유적이 없음은 분명하다. 本格的인 農耕社會라는 중기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불합리하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발전단계에 따른 순차적인 방향으로의 관점¹⁴⁾이 아닌 다른 자연적, 사회적 요인이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논의선상에서 송국리문화가 현재의 三南(湖西, 湖南, 嶺南)지방에 집중된 까닭과 이 시기 주거지의 배치가 군집화되는지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3) 발표자는 송국리형주거지의 발생형으로서 이형원과 나건주의 반송리식주거지의 설정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14) 평등사회를 시작으로 중국에는 국가수준의 복합화로 나아가는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고학자료를 배열하는 방법론적 단순화와 직결한다는 김장석(2007, 14)의 지적을 공감한다.

▶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송국리문화의 중심취락 중 호서·호남의 대표인 송국리유적(소비 중심취락)과 영남의 대표인 진주 대평리유적(생산중심취락)간 그 취락성격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단순히 지역적인 차이로 볼 것인지, 그 사회적 성격을 달리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시기 다양성의 한 모습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연구자 각자의 시각차가 아닌, 이러한 차별화된 관점을 통한 검토를 통해 송국리문화에 대한 실체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송국리문화단계를 複合化社會라는 맥락에서 位階化의 設定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위계화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개별 주거를 포함한 취락자료와 지석묘를 대표하는 분묘자료가 있다. [표 1]과 [표 2]의 취락 연구 성과에서도 보듯이 취락은 ‘大-中-小’, 혹은 ‘上位-中位-下位’ 등의 3단계로, 분묘의 경우에는 연구자에 따라 3~5단계로 분류된다. 그 단계별 기준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위계가 적어도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가 상하 수직적인 위계가 잘 정비된 마치 中央集權化된 身分中心社會로 까지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V. 과제 -맺음말을 대신하여-

① 早期는 農耕文化인가?

현재로서는 남강 어은1지구 104호 미사리형주거에서 쌀, 보리, 밀, 조, 반월형석도가 출토되었다는 점과 초기 유적의 입지가 대부분 하천변이라는 점에서도 그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② ‘前期=火田/中期(松菊里文化)=水稻作’의 二分法的 圖式은 문제가 없는가?

전기에 점차 수도작의 근거자료가 축적되고 있음은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중기 단계의 수도작을 너무 중시하거나 농업 집약화의 근거로 삼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③ 住居型和 農耕形態와의 관계 설정이 아직은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다.

같은 시기 내 다른 문화라면 역시 다른 농경문화 내지는 사회문화가 바탕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는 동일한 취락형태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④ 취락의 규모나 다양성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등급화된 현재의 취락연구는 청동기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시대 특성에 맞는 취락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고민정 · Martin T. Bale, 2009,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 집약화와 사회조직 -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경남연구』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pp.79~105.
- 고민정, 2011, 「稻作의 始作과 청동기시대 社會分化」, 『청동기시대 農耕을 생각한다』, 한국청동기학회 생업분과 제4회 워크숍, pp.63~86.
- 고일홍, 2009, 「농경자료 해석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 검토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선사 농경 연구의 새로운 동향』, (주)사회평론, pp.79~97.
- 고일홍, 2010,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방식 재조명 -화전농경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67號, pp.25~44.
- 孔敏奎, 2011, 「금강 중류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검토」, 『韓國青銅器學報』8, pp.36~69.
- 공민규, 2013, 『青銅器時代 前期 錦江流域 聚落研究』, 숭실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金權中, 2004, 「北韓江流域 青銅器時代 住居 類型과 中期 設定 試論」, 『文化史學』22, pp.7~38.
- 金權中, 2005, 『北漢江流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龍岩里 · 泉田里 遺蹟을 中心으로-』, 壇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權中, 2005, 「嶺西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의 編年 및 性格 -北漢江流域을 中心으로-」, 『2005년 추계학술대회』, 江原考古學會.
- 金權中, 2010, 「청동기시대 중부지방의 시·공간적 정체성」, 『중부지방 고고학의 시·공간적 정체성(I)』, 2010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pp.55~95.
- 김도현, 2012, 「농기구와 농경」, 『농업의 고고학』, 제3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pp.33~49.
- 김민구, 2010, 「영산강 유역 초기 벼농사의 전개」, 『韓國考古學報』75, pp.46~71.
- 김민구, 2012, 「식물자료를 이용한 농업연구:몇 가지 이론적 고찰」, 『농업의 고고학』, 제3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pp.15~32.
- 金範哲, 2006, 「중서부지역 青銅器時代 水稻生産의 政治經濟 -錦江 中 · 하류역 松菊里型 聚落體系의 위계성과 稻作集約化-」, 『韓國考古學報』58, pp.40~65.
- 김범철, 2009, 「농업집약화와 복합적인 사회조직의 발달 -송국리형 취락의 형성과 水稻作」, 『선사 농경 연구의 새로운 동향』, (주)사회평론, pp.192~225.
- 김병섭, 2013,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농경유적 재고」, 『慶南研究』8, pp.2~29.
-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韓國考古學報』60, pp.4~37.
- 金壯錫,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51, pp.33~55.
- 김장식, 2006, 「충청지역의 선사송국리 물질문화와 송국리유형」, 『韓國上古史學報』51, pp.43~77.

- 김장석, 2007, 「청동기시대취락과 사회복합화과정에 대한 검토」, 『湖西考古學』17, pp.4~25.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韓國考古學報』67, pp. ~ .
- 김종일, 2009, 「삶과 죽음의 토포필리아 -한국 청동기시대 농업공동체의 등장과 경관-」, 『선사 농경 연구의 새로운 동향』, (주)사회평론, pp.227~251.
- 羅建柱, 2013, 『青銅器時代 前期聚落의 成長과 松菊里類型 形成過程에 대한 研究 -韓半島 中西部地方 資料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나건주·배상훈·안성태, 2011, 「천안 백석동 청동기시대취락의 편년과 구조」, 『아외고고학』 10, pp.37~72.
- 박순발, 1999, 「혼암리유형 형성과정 재검토」, 『湖西考古學』창간호, pp.79~93.
- 朴榮九, 2007, 「嶺東地域 青銅器時代 聚落構造의 變遷」, 『古文化』69, pp.5~40.
- 朴榮九, 2013, 「南部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의 聚落」, 『韓日聚落研究』, 서경문화사, pp.175~189.
- 裴眞晟, 2006, 「無文土器社會의 威勢品 副葬과 階層化」,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제3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pp.87~109.
- 배진성, 2011, 「韓半島 青銅器時代 開始期の 이해」, 『한국 선사시대 사회와 문화의 이해』, 중앙문화재연구원학술총서2, 서경문화사, pp.125~144.
- 孫俊鎬, 2008, 「石器 組成比를 통해 본 青銅器時代 生計經濟」, 『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경제』, 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韓國青銅器學會, pp.51~71 .
- 송만영, 2006,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제3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pp.9~29.
- 송만영, 2010,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중기 편년의 재검토 -취락편년을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7, 중앙문화재연구원, pp.41~76.
- 申相孝, 2011, 「青銅器時代 農耕聚落의 文化的 特性」, 『考古學誌』17, 국립중앙박물관, pp.127~152.
- 신숙정, 2001,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시론」, 『韓國上古史學報』35, pp.1~31.
- 安承模, 2005, 「韓國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農耕 研究의 現狀과 課題」, 『韓·日 新石器時代의 農耕問題』, 第6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pp.3~18.
- 安承模, 2008, 「韓半島 青銅器時代의 作物造成: 種子遺體를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28, pp.41~66.
- 안승모, 2009, 「작물유체 분석의 문제점」, 『선사 농경 연구의 새로운 동향』, (주)사회평론, pp.271~302 .
- 安在喆,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 -住居址를 통한 中期의 設定」,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pp.43~90.
- 安在喆,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 pp.41~66.

- 安在晧,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43, pp.1~22.
- 安在晧,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安在晧, 2010, 「掘立柱建物이 있는 청동기시대 聚落相」,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한국고고환경연구소학술총서8, 서경문화사, pp.115~168.
- 安在晧, 2014, 「檢丹里遺蹟 再考」, 『韓國靑銅器學報』14, pp.66~100.
- 玉漢錫, 1985, 「韓國의 火田農業에 관한 研究」, 『地理學研究』10, pp.153~178.
- 俞炳琿, 2014, 「靑銅器時代 聚落造成에 適用된 大規模 土木工事와 意味」, 『土木考古學의 現狀과 課題』, 우리문화재단연구원 개원10주년 기념 공동학술학술발표회, pp.277~295.
- 尹昊弼, 2008, 「靑銅器時代의 農耕과 社會」, 『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경제』, 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韓國靑銅器學會, pp.1~21.
- 윤호필, 2012, 「경작유구를 통해 본 경지이용방식의 변천 연구」, 『농업의 고고학』, 제3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pp.51~69.
- 윤호필, 2013, 「경작유구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남강유역의 경작유적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생산과 소비』, 제7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pp.97~121.
- 이강승·박순발 1995, 『둔산-선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충남대학교박물관.
- 이경아, 2009, 「혼암리 출토 식물유체 연구의 한국고고학사적 의의」, 『선사 농경 연구의 새로운 동향』, (주)사회평론, pp.303~310.
- 李基星, 2001, 「無文土器時代 住居樣式의 變化」, 『湖南考古學報』14, pp.119~159.
- 이기성, 2012, 「문화사적 시기 구분으로의 무문토기시대 초기 설정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76, pp.5~26.
- 이준정, 2011, 「作物 섭취량 변화를 통해 본 農耕의 전개 과정 -한반도 유적 출토 人骨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73, pp.31~66.
- 李亨源, 2007, 「湖西地域 可樂洞類型의 聚落構造와 性格」, 『湖西考古學』, 17, pp.26~70.
- 李亨源, 2009, 『韓國 靑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형원, 2012, 「중부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구조와 그 의미」, 『고고학』, 11-2호, pp.33~73.
- 이형원, 2014, 「청동기시대 청천강 및 대동강유역의 취락과 문화집변」, 『고고학』, 13-2호, pp.5~30.
- 이흥종, 2007, 「송국리형취락의 공간배치」, 『湖西考古學』, 17, pp. 114~133.
- 이희진, 2012, 「토양을 활용한 고대 농경 복원」, 『농업의 고고학』, 제3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pp.91~104.
- 이희진, 2013, 「농경의 개시와 토양」, 『자연과학에서 본 農耕출현』, 제1회 동아시아 농경연구 국제워크숍, 국립문화재연구소, pp.137~156.
- 조현중, 2014, 「목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5 -도구론』, 서경문화사 pp.122~145.

- 崔鍾圭, 2005, 「所土里遺蹟에서 본 松菊里文化의 一斷面」, 『梁山 所土里 松菊里文化集落 -京釜高速道路 擴張區間 內 梁山IC建立敷地 發掘調査 報告-』, 慶南考古學研究所, pp.220~231.
- 河眞鎬, 2008, 『大邱地域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許義行, 2013,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연구』,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홍맑음,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湖南考古學報』36, pp.5~35.
- 庄田愼矢・米田穰・那須浩郎・羅建柱・安承模, 2011, 「安定同位體分析から考える先史農耕における陸稻と水稻」, 『國際심포지움 동아시아 植物考古學 研究의 現況과 課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문화유산연구소・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熊本大學 文學部.
- 浜田晉介, 2007, 「弥生聚落と谷」, 『日本考古學』24, 日本考古學協會, pp.75~95.